

이연실 도예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제2전시실서

차 따르는 소리 가득한 다관에 들부처가 살아 숨 쉰다.

제2회 이연실 도예전이 11월 5~11일 서울 인사동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돌돌돌, 찻물 흐르는 소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다관(茶筒)을 중심으로 찻상과 도자기 벽화로 구성된다. 서양 건축적 소재를 전통적 색채로 입힌 다관은 이색적이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온다. 돌을 찻상으로 하고, 부조형식의 도자벽화에 불교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디자인적 형태와 문양을 시도했다. 이연실 씨는 "석축, 탑, 부도 등에서 자연석 돌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현대의 공간에서 잊혀져가는 돌의 풍광들을 도자벽화에 담아보고 싶었다"며 "서양 건축적 양식과 친숙한 우리 문화가 어우러져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2007 유네스코 부도형다관 부분 우수공예품 등에 수상경력이 있는 이연실 작가는 현재 다도가이자 도예강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도예전은 11월 21~26일 인사단원미술관에서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제9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임동조 석공작 '부도탑'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아름다운 한국 문화의 감동 그대로...

"석조를 하다 보면 오래된 문화재들이 많이 보입니다. 경북공 내 전시된 유물을 웅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던 과정에서 수장고에 보관된 흥법 국사의 부도탑을 복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재 명인들의 올림픽,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한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에서 임동조(한식공 1396호) 석공이 정토사 흥법 국사의 부도탑을 복원해 전시한 '부도탑' (아래사진)이 영예의 문화관광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

"정토사 흥법 국사 부도탑은 대리석으로 조성돼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마모되고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8각의 귀마다 달린 꽃이 3개만 남아 있었고 탑을 마무리하는 석재 '모퉁'이 소실된 것을 보고 기막히게 아름다운 작품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도는 일종의 무덤이지만 스님의 정신이 오롯이 담긴 불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탑신이 둥근 공 모양으로 특이점을 지닌 '알뜰' 안에는 스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탑신의 지붕인 옥개석 천장에 새겨진 비전상을 비롯해 모든 조각은 극락세계를 연상케 했지요."

임 석공은 1년 가까이 시간을 복원 작업에 매진했다. 필요한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담당자로부터 도움 받아 연구하면서 직접적인 관계자들에게 참고를 구했다. 한국에서 대리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실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입자 고운 화강석으로 대리석과 같은 질감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다.

고려 목종(997~1009년) 승려 흥법 국사의 부도인 정토사 흥법 국사 실상탑(국보 102호·높이 255cm)은 8각 지대석 위에 복판연화로 된 복련석을 얹고 8각 간석면에는 운룡무늬를 조각했다. 옥개석 밑면 천정에는 비전상이 새겨있으

며 한쪽부분만 남은 8각 귀꽃 전체를 복원하고, 없어진 상륜부는 원형 불탑에 의해 상륜부 형태를 원형화 고중에 의해 원형 8각 연꽃모양에 보륜을 만들어 복원했다. 전통가공기법인 고운 도드락 마감으로 국보를 재현했다.

"저는 문화재를 다루는 한 사람입니다. 현재 광화문 이전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68년도에 복원된 자료를 바탕으로 14.5m 남쪽으로 이전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원형을 찾아서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다섯 개 궁(宮)을 복원하면서 사라져 가는 문화재를 수호하고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후대에 전승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우리 땅에서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을 재탄생시키는 장인들의 노고가 어우러진 제9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은 10월 31일까지 덕수궁 석조전에서 관람 가능하다.

가연숙 기자 omf1flower@buckhappia.com

제5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환과 확장'으로 조명한 미래의 소통

Anaisa Franco. connected Memories

'잘라 생명을 미디어(Media)의 속성이다.'

제5회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가 11월 5일 폐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립미술관에는 8만 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전환과 확장(Tum and Widen)'을 주제로 전통적인 미술과 '미디어아트(Media Art)'의 차이를 찾아 변화를 밝히고 미래 미술을 조명하는 전시다.

'빛'의 공간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전자파 또는 파동으로 연출된 빛의 이미지와 효과를 주제로 한다. 일상 소재들을 이용해 작가들의 궁극적인 물음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인가?', '기술적 매체들이 인간의 지각에 관여하는 방식', '출생과 죽음' 등을 표현한다.

'소통'의 장으로 구성된 공간에는 상호 협력적인 인터랙티브(Interactive) 설치 작품으로 가득하다. 전통미술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수동적이었던 미디어 아트는 참여로써 대화를 가능케 했다. 라파엘 로사노 헤머의 '폭발그림자 상자 4번'은 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해 관람객의 표정과 자세를 다양한 화면변화로 나타내 공존을 다시 정의하게 한다. 존재와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화업 사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밀접한 세계를 미디어를 통해 보여준다.

'시간'의 공간은 비디오 아트 및 애니메이션, 점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움직임 작업을 담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미지 변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시간의 경계를 넘나든다. 같은 살인 사건을 2개의 다른 시각으로 찍은 양푸둥(37.중국)의 영상 '지열의 가족'은 정각의 시각화와, 관전과 해석의 다양성을 표현한다.

디지털은 미술이 지닌 공간과 시간의 영역을 변화하고 재구성한다. 예술가들은 자연의 섭리가 지닌 제한성을 극복해 인공적으로 재발견하고 창조한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현재 속으로 자아의 실체를 과감히 해체하고 있다. (02)2124-8800

가연숙 · 이상연 기자



벨기에로 간 '영산재' 평화의 법석 연다

한국불교문화 행사 내년 2월까지 풍성

21세기 달마(佛法), 서유럽으로 가다! 초콜릿과 맥주로 유명한 '벨기에 왕국'으로 한국불교문화가 여행을 떠난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본부에 있는 벨기에 CFA(Center For Fine Arts) 공동 주최로 내년 2월 28일까지 브뤼셀 CFA에서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다.

한국불교 의식의 정수 영산재는 11월 1일 앙리르베프 홀에서 공연한다. 수세기 동안 전승되어온 영산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 재현이라는 취지 이외에 국은 융성과 인류 평화를 발원하고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의식을 병행한다. 또한 불교 사진작가 선암 스님의 영산재 사진 50여점이 지난 프랑

스 전시에서 이어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0월 8일 축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보자르 홀타 홀에서 故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108번뇌'展, 앙리르베프 홀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 미술展 '부처의 미소'가 이미 첫 발을 내딛었다.

벨기에 한국페스티벌 행사는 2007년 5월 벨기에 총리가 한국종합문화행사 개최 공식제의 서한 서신으로 추진된 한·벨 문화교류의 일환이다.

가연숙 기자

심곡암 11월 2일 산사음악회

깊어가는 가을 북한산 자락 심곡암에서 평화의 음악이 펼쳐진다.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은 11월 2일 오후 1시 '산사음악회-종교 화합 그리고 평화'를 개최한다. 진명 스님 사회로 국악인 오정해 씨와 이상우 클래식기타리스트의 공연, 천지윤 씨의 해금 공연 등이 이어진다. 또한 불자 가수 지혜원 씨와 뮤지컬배우 손지일 씨 등도 출연한다.

행사 전 12시에는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심곡암 지부 개원식이 열린다. (02)914-8869 김진성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 BEST 추천도서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왕초보, 영전박사 되다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불상의 미소

시대의 미학과 문화가 속 사는 불교 조각

불상의 미소

극락을 꿈꾸다

그림으로 보는 부처님의 나라

마음의 고향

만유일체(萬有一體) 두두물물(頭頭物物) 세상 모두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마음의 고향

광명진언 사경

"백종도, 승능 및 시형 협력법원"에 신관심을 얹고 일심(一心)이 되게 하는 광명진언 사경!!!

광명진언 사경

망고 밝은 마음 백팔배

망고 밝은 마음 백팔배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8의 기적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8의 기적

이와같이 살았으면

무비스님의 보현행원품 해설

이와같이 살았으면

간단 명료한 불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지면 바로 여기에 있다.

간단 명료한 불교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생계가 승가대학 - 월호스님의 천수경 풀이 삶이 행복해지는 수행, 지혜가 샘솟는 공부!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